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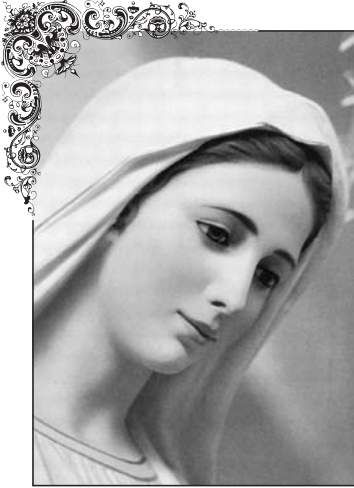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0, October / 제58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어머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 모두를 강복한다. 너희가 여전히 나약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너희를 재촉한다. 어린 자녀들아, 말을 적게 하고, 너희 개인의 회개를 위해 더욱 힘쓰라고 너희에게 촉구한다. 그러면 너희의 증언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너희의 삶이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0년 9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천사들의 역할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
274. 1983년 9월 29일, 쿠라사오성(서인도제도)

성 미카엘에게 맡겨진 임무는 너희에 대한 사탄의 무서운 공격에서 너희를 지켜 주는 일이다. 나와 너희의 원수가, 이 시대에 유난히 으르렁대며 맹렬히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내 호소를 받아들여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내 소중한 아들들, 그리고 승리할 나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내 모든 자녀들이다... '진교회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는 '악마'와 그의 위험한 계략에서 너희를 구하려는 전투에 큰 권능으로 개입하여 싸우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당부하거니와, 교황 레오 13세가 작성한 짧지만 매우 효력있는 구마기도를 매일 외움으로써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를 간청하여라. 이와 같이 '주님의 천사들'은 지금 교전 중인 전투의 계획안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그들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 전투에서 너희 곁에 있으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너희의 술한 상처를 치유하며, 너희를 악에서 보호한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에서 발췌)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 절망에 빠져있는 저의 가정에 인내와 믿음을 주소서.
- 성모님, 아들 부부가 아기를 갖도록 축복해주시고 보살펴주소서.
- 성모님, 가족들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 성모님, 자녀들이 굳은 신뢰와 믿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가정의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 두 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예수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빛으로 살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 본당과 주일 학교 교사, 학생들을 어머니 품안에 안아주시어 굳은 믿음을 주소서.
- 남편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 연옥 영혼들과 친지들의 영혼이 주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 몸과 마음이 약해져 냉담중인 ○○○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을 청합니다.
- 건강을 축복해주시고 어려운 경제를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언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지난 삶을 축복해주시어 행복하게하소서.
- 성모님의 제가 성탄절에 십자가 산에서 발현 언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 가족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시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 이 토마스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 성모님! ○○○를 봉헌하며 함께 메주고리에 순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요. 성모님의 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 성모님, 동생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소서.
-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과 어머니께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하옵니다.
- 사랑하는 성모님, 딸과 아들의 성소를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가족들이 살아 계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하소서.
-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남편과 두 아들의 신앙을 위하여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 요한, 요셉 가정과 청소년들을 돌보아주시고 윤옥순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동생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과 성모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나의 아기들의 영혼과 낙태된 모든 아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 아들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옴을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나의 주님, 도와주소서!
- 책장암 선고를 받은 언니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 내 마음안에서 성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느끼고 싶습니다.
- 예수님, Roy Miron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해주시고
두 아들과 손녀딸, 새로 태어날 아기와 제미가 믿음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소서.

-
- 10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성모님 발현 29주년 기념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의 치유 피정 (2)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교육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강론, 교리 교육, 설교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모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마을 메주고리예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고, 지금 아주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그 소파에 누이고 푹 쉬십시오.

첫 번째 씨앗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메주고리예는 평화의 오아시스다. 어머니 마리아가 평화의 모후로 발현하신 곳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성모님이 평화를 주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임무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 성모님은 그 평화를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하

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근심이나 스트레스, 잘못된 사상에서 해방되어 침묵하고 평화를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그 평화는 거룩한 공간이니 바쁘게 다니지 말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머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하여 모든 걱정을 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초조함, 불안,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1분 동안 차분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평화 속에 머무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준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의 평화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주시는 하느님의 평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려 놓으세요. 분노, 도둑질, 거친 욕들, 수치스러움과 나에게 상처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감과 죄의식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죄의식으로 자신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죄의식을 느낍니다.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지요.....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죄의식이 두렵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자주 고해성사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해성사 후 사죄증을 받고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문제 속으로 옮겨 봅시다. 고해성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그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해한 그 죄는 더 이상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음으로 죄라고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그분 앞에 내려 놓으세요. '분노, 도둑질, 거친 욕들, 수치스러움과 나에게 상처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느낌을 미화하지 마세요. 나를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포장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 놓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지금 그 말씀대로 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모두 드리는 것! 그것이 최상의 의탁이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됐다, 됐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내 평화를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죄는 예수님이 맡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이야.' 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려 있던 우도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천국에 갈거야.' 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죄의식을 버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무겁게 했던 모든 불안과 초조와 분노, 미움과 두려움들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어린양이신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자루에 집어 넣고 다시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에서 흘러진 그 모든 보혈은 모든 성체 성사를 통해서 흘러지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 위에 그 보혈이 떨어짐으로써 모든 죄는 사라졌다. 너의 죄는 용서 받았다. 깨끗해졌다. 잘 보아라." 이제 여러분의 죄와 죄의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우울증도 불안도 초조함도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히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교회는 슬픔이나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희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웃어야 합니다.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느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죄를 담은 그 주머니를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모든 죄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의 죄가 용서 받았다. 이제는 죄가 없다. 너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기쁘다. 나는 네 손을 꼭 잡고 싶다. 너를 끌어안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가 있어서 기쁘다. 참 좋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은 습관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몇 번에 걸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의 평화를 믿고 느끼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내 평화를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아주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끼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주 노력을 한다면, 언제인지 모르게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을 겁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꼭 기억해야 할 좋은 습관은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그분의 자루에 모두 넣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 묶어서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죄를 없애 주십니다. 또 그분의 거룩한 보혈을 내 마음안에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려주시어 지옥을 향했던 모든 불결했던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적어도 하루 세 번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새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 째 씨앗은 세례성사입니다. 어느 가게의 진열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시다. '이 곳에서 죄를 없애 주고 세상의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낙태와 안락사와 자살과 불치병을 막아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팝니다.' 한 젊은이가 상점에 들어와서 물었습시다. "저기에 써 있는 것을 모두 사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상점 주인인 천사가 말했습시다. "우리 가게는 완성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마음에 심을 수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욕하고 비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면, 사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씨앗을 심는다면, 삶을 변화시켜 주는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 그 세례성사의 씨앗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나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세례성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은 나의 아빠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천상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꼬마 아기가 아빠를 보고 막 뛰어가서 매달리면서 "아빠, 아빠" 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성서에 있는 히브리어 '아빠'는 사랑하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빠, 엄마보다 더 부드러운 아빠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성서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처럼 아빠에게 돌아가서 "아빠, 저는 당신하고 살 거예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성사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 주는 증거입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이 씨앗을 마음 안에 심어봅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할 때 마음 안에 세례성사의 뿌리가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피정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갖는다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성체를 받아 모셨던 순간들을 기억해 봅시다. 성당을 나갈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당의 감실에 다시 두고 나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 그 거룩한 몸을 영성체를 통하여 내 몸 안에 모신 것입니다. 그분의 성혈이 내 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은 예수님을 만졌던 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고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냐구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몸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성체를 영하게 되면 대단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호흡을 하더라도 하느님과 함께 심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세례성사의 씨앗들은 여러분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성사의 은총이 담긴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사는 견진성사입니다. 여러분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시다. 그러면 그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채신 봉사회는 성령의 열매만을 보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큰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현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차분하게 성령을 불러 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성령의 목소리만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성령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체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제 안에 계시게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성숙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제 힘으로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성령님, 당신



께 모두 내어드립시다. 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예수님, 당신을 믿나이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을 전하세요. "아~ 당신이 계시어서 참 좋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매님은 하느님의 딸, 형제님은 하느님의 아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 해 주세요. 칭찬은 항상 멋진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며칠 만이라도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모임에서 5일 동안만 이렇게 말하면, 구역이 바뀔 것입니다. 10일 동안 직장에서도 해 보세요. 사회가 바뀌고 세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마디만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왼쪽과 오른쪽과 옆에 있는 친구들, 앉아 있는 형제나 자매들 중에 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좋으신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10번 정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결심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여러분의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한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길은 정말 긴 여정이지만 분명히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안심하고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믿고 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이제 하느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한다면, 드디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가 천국에 함께 있기만을 바라십니다. 지옥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로지 지옥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행복과 기쁨만을 원하시고 오늘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느님께서 당신을 환자로 만드셨다. 질병으로 단죄하고 계신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두뇌의 모든 세포들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들과 나쁜 결심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천국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선과 긍정적인 것만을 기다리십시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

니다. 그분께서는 외아드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하느님의 선과 하느님의 자비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네 번 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이미 하느님은 나에게 주셨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느님 곁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기도했을 때, 이미 그분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가톨릭 신자로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고 기도할 때에 이미 너희들이 구한 것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을 때에 다른 것들은 저절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왕국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메주고리예에서 함께 하는 이 3일 피정은 여행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죄인이라는 출발지에서 성인으로 가는 목적이 분명한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남아 있다면,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우울해하고 쉽게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의 모든 악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여러분의 자아를 손에 올려 놓고 끌어안고 말해주세요. "내 영혼아, 네가 있으니 참 좋구나. 나의 자아야, 네가 살아 있으니 참 좋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계시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3일 피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M**

(이 기사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9주년을 기념하여 야고보 본당의 주최로 진행된 3일 간의 치유 피정 중 둘째 날의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부 -)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의 약력: 크로아티아 자가브리아 대교구 소속으로 1967년에 서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과 교회신학 박사, 현재 자가브리아 신학대학의 교수, 2002년부터 교황청 국제신 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겸손의 길을 따라서

500: 1993년 9월 8일 벳푸 - 오이타 (일본)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너희의 '아기 엄마'인 나를 바라보아라. 지상 삶에 태어난 순간의 나를 너희가 공경하고 있으니, 내가 누인 요람 돌레를 사랑과 겸손의 향긋한 화관으로 꾸며 주려므나. 나는 너희 '엄마'이다. 너희로 하여금 겸손과 작음, 유순과 순종, 극기와 순결의 길을 따라 가게 인도하는 엄마이다. 매일 겸손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더없이 놀라운 기적을 보도록 불려졌기 때문이다. 주께서 당신 '여중'인 나의 겸손을 그윽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듯이, 오늘 날에도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 모두의 겸손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겸손의 길을 따라 작은 사람이 되는 법을 내게서 배워라. 마음이 교만하고 건방진 이들은 누구든지 내 원수가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오늘날, 너희는 항상 '진리' 안에 머무르며,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여라. 그리하여 이 극심한 암흑의 때에 만민에게 '복음'의 빛을 펼쳐

라. 그러면 너희가 바로 오늘날의 하느님 음성이 된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고, 내 작은 아들들의 침묵으로써 권세와 힘을 가진 당신 적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다.

겸손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시대에는 내 '원수'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장적이고 반역적인 악한 정신으로 유혹하고 있으니, 너희는 겸손과 용감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 주어라.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의 사제생활을 규제하는 모든 지침을 유순히 따르며, 너희에게 더욱더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너희 안에서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라. (마태6,9-10 참조) 겸손의 길을 따라 순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

원수가 모든 사람들을 죄와 불순결의 암흑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고 있으니, 너희는 순결 안에 머물러, 거룩하고 흠 없는 사제생활의 모범이 되어라. 특히 독신 생활에 대한 너희의 서약에 기꺼이 충실할 줄 아는 증인이 되어라. 사제의 몸은 세속과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탄생' 축일인 오늘, 내 조그만 아기야, 그래서 너를 또다시 이 멀고도 큰 나라에 데려왔단다. 수천만의 네 형제들이 아직도 이교적 암흑에 잠겨 살고 있음을 보아라. 이들은 오로지 하나인 양우리 안에 들어와, 마침내 '착한 목자'(요한 10,11-14)이신 분의 달디단 음성을 알아듣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미리 말하거니와, 머지않아 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티없는 내 성심이 개선함과 더불어, 아직은 이교도인 이 큰 나라 전체가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양떼에 속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 천상 엄마의 음성에 유순히 귀기울이며 겸손과 신뢰 안에서 그 때를 준비하여라. 오늘 나는 너희를 축복하며 손잡고 이끌어 너희에게 이미 들이닥친 대 환난의 고통스러운 때를 잘 지내도록 한다.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 '왕국'의 '광채'에 싸여 너희에게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M**



(이 메시지는 다락방 기도회의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2011년 성지 순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 2011년 3월 27일 (일) ~ 4월 5일 (화) 9박 10일
-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 2011년 5월 15일 (일) ~ 5월 28일 (토) 13박 14일
- 예루살렘 / 이집트 /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 2011년 6월 15일 (수) ~ 6월 28일 (화) 13박 14일
- 이태리 / 바티칸 /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 2011년 7월 24일 (일) ~ 8월 8일 (월) 15박 16일
- 프랑스, 루르드 / 이태리, 바티칸 /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 2011년 10월 11일 (일) ~ 10월 26일 (수) 15박 16일
- 파티마 / 스페인 / 이태리-바티칸 / 메주고리에/드브로브닉
- 2011년 12월 26일 (월) ~ 1월 4일 '12년 (수) 9박 10일
-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 610-366-9613 / 917-626-4314

홈페이지 : www.qpmm.org / e-mail : qpmm.org@gmail.com

아들들이 용기를 내어라 !



그들이 참으로 나를 '어머니'와 '모후'로 생각한다면

사도들의 모후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마음속에서 모든 여인 가운데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나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하느님의 마음에 든 것은 겸손 때문이었다. 내 아들(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상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낳아야 하므로 그분을 따라 당장 '아버지 집'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갈바리아의 한없이 처참한 고통으로 교회를 낳은 '어머니'요 '공동 구속자'인 나는, 이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신비체'인 교회를 낳아야 했던 것이다. 나와 너희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신비'를 성취하시면서 내가 그분 곁에 있기를 원하셨다.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혈통으로 진정 내 아들이기도 하신 그분께서 내가 공동 구속자가 되기를, 또한 당신 신비체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내 목자들들과 사제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적 유대를 완전히 의식하고 참으로 나를 '어머니'와 '모후'로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티없는 성심 신심을 전파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들도 더없이 풍성한 은총으로 감싸 줄 것이다. 오순절에 나는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령께서 다른 이들보다 더욱 풍성하게 내게 내려오셨다. 성

령의 베풀인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지상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들아, 이 '천상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인간의 사랑보다 무한히 더 크다. 나는 그런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참답고 성실한 회개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엔 저항하지 말아라! 지나가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이제 정화의 때가 다가왔음을 너희에게 예고하고 있으니, 이는 자비이고, 그것도 크나큰 자비이다. 너를 축복한다. 아들아.

1976년 1월 7일

모든 승리의 모후이신 마리아

내 교회의 비할 데 없이 큰 보배는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이다. 내 어머니는 또한 너희 어머니이기도 하고, 우주의 모후, 모든 승리의 모후, 하늘의 모후이시며, 내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후이기도 하시다. 그분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신다.

홍측한 악의를 가진 괴물같은 자들만이, 창조주이신 아

아들아, 환난 중에 있을 때 마리아를 바라보아라.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버지 하느님의 권능으로부터 티없이 완전하게 나온 단 하나의 피조물이신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어머니만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죄를 모르셨고, 결코 악의 어두운 권세에 속한 적이 없으셨다.

즉 그분은 단 한 순간도 루치펠의 지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 한평생 아주 가벼운 죄 하나도 짓지 않으신 것이다.

악이 내 어머니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스쳐간 적도 도무지 없다. 그분은 완전히 순수한 투명성 안에서 태어나시어 살아가셨으니,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순수한 투명성과 모든 점에서 유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땅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내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으로 하느님 대전에 계셨던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 죽음이 패배하고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질서와 균형이 내 어머니의 중재로 회복되었다. 세상에 들어온 죽음이 내 어머니를 통해서 패배하고,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이 재창조에 의해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창조와 자기 생명의 목적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내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느냐?

그것은 악의 어두운 세력의 냉혹한 증오에서 온다. 지옥의 창조가 하느님의 '정의'에 의한 것인 반면, 마리아께서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느님 '자비'의 표현인 까닭이다. 지옥의 어두운 세력들의 교만은 죄의 무거움에 비례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마리아께 대한 그들의) 질투나 시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옥에서 용솟음치고 지옥이 복돋우는 드센 물결과 같은 증오가 나와 너희의 어머니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낳아 키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키우실 교회에 퍼부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기쁨이요 인류의 희망이신 그분에 대한 모독과 욕설과 독성 행위가 자행된다. 인류로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미워할 외적 동기나 실제적 동기가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언제나 악마의 압력과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지옥의 세력들은 마리아를 무서워하고 앞으로는 늘 무서워할 것이다. 어떤 마귀도, 심지어 루치펠과 사탄

과 베엘제불과 같은 마귀 두목까지도 절대로 성모님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낼 뿐더러 오히려 그분 앞에서 도망치기 마련이다. 그들은 무뢰한이 어린이를 악한 일에 이용하듯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가장 큰 사람을 앞세워 그들의 비열한 공포를 무마한다.

새신될 교회의 빛나는 여명이신 마리아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 이는 그 광채로 천국의 천사와 성인들을 빛나게 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뽑힌 모든 복된 이들을 그 향기로 충만하게 하는 '꽃'이니, 바로 성삼위 하느님의 중심에 위치하시는 마리아이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은총과 모든 향기를 지니고 계시며, 세상에 살고 있는 선한 이들의 모든 희망이시다. 그들은 세상살이의 어두운 미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 '새벽'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악인들의 영혼에 마리아께 대한 반감을 서서히 주입하지만, 마리아께서는 그 반대로 그 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바라는 모든 착한 이들의 믿음과 보편적인 사랑의 중심에 계신다. 사실, 마리아께서는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바람을 '말아 관리하시는 분'이다. 마리아께서는 '빛'의 '빛', '사랑'의 '사랑', '생명'의 '생명'이시고, 성삼위 하느님 한 가운데서 돌아난 꽃망울이시며, 온 세상에서 싹트고 자라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이시다. 영혼들은 마리아의 피에서 생겨난 '피'로, (곧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여 강생하신 분의 '피'로) 구속되었으므로 당연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고, 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집'을 꾸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보물이니 말이다.

아들아, 환난 중에 있을 때 마리아를 바라보아라.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게 강복한다. 너와 함께 네게 소중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강복한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978년 12월 6일 M

가톨릭출판사 발행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에서 발췌



어머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2010년 9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어머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 모두를 강복한다. 너희가 여전히 나약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너희를 재촉한다. 어린 자녀들아, 말을 적게 하고, 너희 개인의 회개를 위해 더욱 힘쓰라고 너희에게 촉구한다. 그러면 너희의 증언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너희의 삶이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어머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 모두를 강복한다: 제 사무실 책상 앞쪽에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껴안고 계시는 액자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성모님의 품에 자신의 온 몸을 내맡겨 안기신 모습이고, 성모님께서서는 두 팔로 교황님을 감싸 안고 계신 모습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 그려진 상상의 그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 자녀들에 대한 성모님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을까!'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모님 발현목격증인들처럼 그분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빚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아니 그분은 세상의 어머니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들이면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그분의 사랑과 현존을 느끼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모님 상본이나 성모상이 있다면, 가슴에 안고, "당신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욱 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그분의 사랑과 현존을 더욱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 6월 24일 이래 지금까지 메주고리예를 통해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평화의 모후, 평화의 여왕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9장의 말씀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날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 9장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이사 9: 5-6) 이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함께 성모님도 성부 하느님께서로부터 이미 평화의 모후로 불리움을 받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바로 그 평화의 모후께서 이번 달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어머니로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평화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의 축복은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과 마음에 늘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평화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여전히 나약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너희를 재촉한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 처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 35, 37)고 답했고,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38절)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이 자신의 약함을 겸손하게 맡겨 드리신 성모님의 믿음에 찬 응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으며 겸손하게 그 힘을 청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고 겸손해지려면,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말을 적게 하고, 너희 개인의 회개를 위해 더욱 힘쓰라고 너희에게 촉구한다. 그러면 너희의 증언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너희의 삶이 끊임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필요한 말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컨대, 잡담, 험담, 자기자랑 등을 과장, 왜곡, 혹은 심지어 거짓까지 보태 가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야고 3, 2-3, 8)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여야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모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표현해보면,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느님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침묵이 있는 곳에서 우리 개인의 회개도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분께로 마음을 온전히 향하는 것이기에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하느님께 깊숙이 잠길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가득한 기도와 개인적인 회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말을 적게 하고, 너희 개인의 회개를 위해 더욱 힘쓰라고 너희에게 촉구한다."

말을 적게 하고, 그 대신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며 자신의 회개를 위해 애쓴 사람이 자신의 모범과 말을 통해 하느님과 그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M**



위기와 어둠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라!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메주고리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도의 장소로 발전하였는데요……

요조신부 : 사람들이 결정한 운동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구성한 운동도 아닙니다.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직접 이끌어 가셨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위한 은총이 아니라 작은 이들에게 위대한 은총이 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불출 알고 참여할 줄 아는 작은 이들, 뛰고 따르고 순명하며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사도들의 시기 이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모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발현하시는 걸까? 지금처럼 세상이 불안에 떨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인간이 인간을 혐오할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오히려 부정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는 낙태의 합법화이며 사탄주의가 입법화되어 살인과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시 삼십 분 안에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끊어 주십사 요구할 수 있고, 의사들은 "두 시 삼십 분에 시신을 가져 가십시오." 라고 말할 겁니다. 무섭습니다! 절대로 손을 대야 하지 말아야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만든 생명

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은 저와 제 자식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께서 이런 사막을 넘어 서고, 공허한 이론, 돈, 거짓 우상들과 위선적인 가치 등을 건너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겸손하고 작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실현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물을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미약해 보이는 이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느님께서서는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저토록 하찮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성모님께서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초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믿고 계신다는 뜻이며, 성모님께서 중재자로서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알려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의 실현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이에게는 평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메시지이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통교입니다. 이것은 성탄절 밤에 천사들이 노래하던 것입니다. 평화는 새로

평화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풍성함이며, 가정의 충만함과 교회의 거룩함이고 모든 관계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은총이고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은 계약인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발현 증인 중의 한 명이 성모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름이 뭐죠?" "평화의 여왕이다!"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발현 언덕인 발현 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천천히 또 다른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1933년 베르나르도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이 예수님의 선종을 기념하는 해에 세운 십자가산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1981년 7월 초 주일 아침, 저는 발현사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미사 봉헌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십자가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는 찬란하게 빛나는 큰 빛의 베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그 앞에는 동정 마리아께서 서 계셨습니다…… 얼마 후 십자가산의 정상에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면서 왼쪽 날개 부분으로부터 한 자 한 자 단어가 나오더니 서서히 하늘로 확산되었습니다. 미르, 미르, 미르는(MIR)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흐르는 전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로 주일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젊은이가 조금 전에 우리가 목격한 십자가산의 모습을 즉석 카메라로 찍은 여섯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밀경찰이 즉시 그 사진들을 압수하고 젊은이를 체포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아내는 즉석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지고 드브로브닉을 거쳐서 파리로 돌아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미르! 평화! 평화는 하느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공간입니다. 평화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함으로써 위로해 주고,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하며 축복받게 해 줍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제게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너를 빛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이사야 43,1-2.4)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6),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잇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야 49,15)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기쁨의 평화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동정녀께서 그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탄생하고, 십자가로부터 회개와 치유가 시작되고 변화되어, 평화의 성부를 향해 걸어 갈 능력을 얻습니다. "성부께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평화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풍성함이며, 가정의 충만함과 교회의 거룩함이고 모든 관계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은총이고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일치로써 우리가 은총으로 초대 받은 것입니다. 평화는 위대한 선물로써 인간의 본성이지만 인간 혼자만이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돈, 권력, 혹은 인간이 소유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속에는 항상 주님께서 현존하십니다. 평화는 하느님과 복음의 완전함과 진리의 열매로서 인간을 영원함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온 존재를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향해 있게 합니다. 평화는 하느님과 일치한 사람의 미소에서 피어나는 향기이며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오직 걸치고 있는 낡은 인간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을 향한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오, 질투, 분노에 집착한 생각들을 버리고 절제하고, 선을 향한 평화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기도와 성사들입니다! 평화는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투쟁이나 나약함, 불필요한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은총 지위에 머물도록 합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단순한 복음적 생활이었던 성 프란치스코의 삶입니다. 인간이 평화에 도달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기도라는 문을 통해야 하는데 실망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 응답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빌어 우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이 성모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리에게 청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화해의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이런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동정녀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단식하고, 우리가 지닌 어둠을 비추는 빛이며 무력한 우리 앞에 힘이 되는 매일의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일치하라는 이 말씀의 중심은 성체성사 생활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우리 생활이 어떻게 하면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십자가를 통해 해방되었음을 인식하게 될 때, 변화되어 세상을 위한 사랑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 현대에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조신부 : 동정 마리아께서는 평화의 모든 면을 언급하십니다. 육체의 평화, 영혼의 평화, 양심의 평화, 마음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하느님과의 평화,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자연 환경과의 평화, 교육 안에서의 평화, 가정의 평화 등입니다. 평화는 해방자이며 인간과 사람들 사이에 내재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메주고리에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처럼 초대해야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미국 강연을 하고 왔는데(2002년 12월), 예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와 성모님의 말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 21년 5개월 동안 메주고리에에서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한 묵주기도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무기이며 악과

의 모든 불화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교황 바오로 2세의 묵주기도에 관한 사도적인 서한(Rosarium virginis Mariae, 2002년 10월 16일)에 담겨있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을 이 거대한 미국의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강연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1992년 4월 25일 메시지,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부터 저는 믿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의무는 하나의 책임으로써 제가 수락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위기와 어둠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라. 탈출구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함께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드립시다. 사탄은 물러갈 것이고, 싸움은 끝나고 악한 생각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특별히 이 평화의 메시지의 대상에 대해 언급하셨습니까?

요조신부 : 모든 사람들입니다. 참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 평화와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에에서는 종교와 나라, 인종을 막론하고 찾아온 전 세계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정 마리아의 평화는 유엔에 의해 구상된 것이 아닙니다! 메주고리에에는 하느님의 선물로써 기적적인 열매들이 많고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M**





은혜로운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

성루도비코

분심을 물리침

묵주기도를 제대로 잘 바치는 것보다 예수 마리아께서 더 영광스럽고 영혼에 더 많은 공로가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로 꾸준한 간청을 정신차려 하지만 거의 불가피한 분심에 빠지게 되므로 계속 잘 바치며 수행해 나가기가 이보다 더 어려운 기도도 없습니다.

소성무일도나 일곱 편 시편을 읽거나 혹은 묵주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문들은 그 낱말과 표현이 다양해서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우리의 상상력이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예방할 뿐 아니라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와 반대로 묵주기도는 똑같은 형태로 동일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졸려서 더 새롭고 덜 지루한 기도가 되게 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도문이나, 다윗의 시편을 바치는 것보다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는 데 더 열성어린 신심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안정되기 어려운 우리의 상상이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를 분심들게 하고 기도를 멀리하도록 애쓰는 마귀의 악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물리치고 묵주기도를 한결 같이 바칠 때 악마는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며 부주의하게 됩니다. 악마

는 이 어려움을 더 증가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도 하기 전에 악마는 우리가 따분함을 느끼게 하며 분심 들거나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 하였을 때에 사방에서 우리를 억누르며 많은 어려움과 분심잡념이 들도록 성가시게 굴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방금 바친 기도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이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네게는 소용없는 일이다. 너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정신차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반 시간 동안 묵상을 하거나 다른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내일 덜 졸릴 적에 더 주의 깊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니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어라." 이런 종류의 속임수로 악마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포기해 버리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멀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신심으로 바꾸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묵주기도회 형제자매들이여, 이런 악마에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의 상상이 줄곧 여러분을 귀찮게 굴고 온갖 종류의 잡된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을 채울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묵주기도는 가장 훌륭한 공로를 쌓으며, 쉬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공로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에 즐거운 맛을 못 느낄 때, 지루하고 침착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뜻과 달리 상상이 어지럽힐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평화 속에서

설 시간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을 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온통 분심과 싸워야 할지라도 손에 무기(묵주)를 들었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더라도 묵주기도를 중단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무서운 전쟁이지만 그것은 충실한 영혼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팔을 내리고 묵주기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패배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악마는 그대의 곳곳함을 쳐 이긴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대로 가만 놔두었다가 심판 때 여러분의 불충실과 비겁함을 조롱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합니다." (루가 16,10). 아무리 작은 기도를 바칠 때라도 가장 작은 분심까지도 충실히 싸우는 사람은 역시 더 큰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만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시종이며 시녀인 여러분은 모두 묵주기도를 명심해서 드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항상 예수 마리아의 현존 안에 있게 되는, 예수 마리아의 친구들인 여러분을 파리떼들이(나는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분심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열하게 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분심을 없애는 방법을 제의합니다.

좋은 방법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청한 다음 잠시 하느님이 현존을 느끼면서 다음에(순 번째 장미)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각 단을 바치십시오. 먼저 한 단을 바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여유를 가지고 이 단에서 찬양하려는 신비를 생각하고 복되신 어머니의 전구를 통하여 이 신비에서 가장 빛나는 덕행의 하나나 혹은 여러분이 당장 특별히 필요로 하는 덕행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꼭 청원하십시오.

그런데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다음의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잘못은 어떠한 은혜도 전혀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묵



주기도를 드리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언제나 몇 가지 은혜를 꼭 청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교의 큰 덕행 중에 하나를 키우기 위해 혹은 여러분의 죄악 중의 하나를 억누르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두 번째 큰 잘못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너무 빨리 끝내 버리려고 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아무런 뜻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가 우리 양심에 무거운 짐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거나 혹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지 않고 다소간 보속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스런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를 보면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빨리, 그리고 우물우물 중얼거리며 바치기 때문에 말마디가 충분히 발음되지도 않게 합니다. 최하위의 사람에게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인사말을 하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그러한 방식의 묵주기도로 공경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한 신앙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기도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묵주기도를 천 번 만 번 드린 뒤에도 그 전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묵주기도회 형제여러분, 모든 기도의 속도를 여러분이 조절하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칠 때 각 구절을 좀 짧게 쉬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동안 급하게 기도를 바치던 나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끊고 쉬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을 가다듬고 바치는 한 단은 그저 빨리, 조금도 쉬지 않고 경솔하게 수 천 번 바치는 묵주기도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M**

(‘묵주기도의 비밀’ 중에서 발췌)

사탄은 가정을 분열시키며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 현대 가정에 대한 비츠카의 권고 -

2008년 3월 23일 임마누엘 수녀

제가 비츠카의 집을 찾아갔을 때, 비츠카는 가정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이탈리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지혜와 건전한 상식은 메주고리에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현대 가정에 대한 자신이 생각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풀어 주고자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해외로 가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의 아버지, 페타르 이반코비치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35년간 독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그분은 저희와 함께 살지 못하고, 객지에서 홀로 지내시며 힘들게 일하는 것을 결코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에는 무척 춥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운 현장 막사인 '알제코스'에서 여러 남자들과 함께 지내셔야 했지만 한번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가족들

보다 자기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내어 주거나, 자유롭게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함께 할 시간도 말도 하지 않으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가족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면서 가정을 분열시키며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 각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고의 이득을 얻고자 하면서 물질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둡니다. 병적으로 가족들간의 화목보다는 오직 물질적인 소유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피폐해집니다. 오직 더 많은 물질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과 가치관은 가족



의 가치관을 없애주고 마음의 문을 닫아 겁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족들은 서로 외로워하고 자주 견딜 수 없는 고통속에 살아 가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오시지 않는 그런 가정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받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장합니다. 점점 커지는 불평 불만과 분노와 슬픔은 마침내 그 가정을 파탄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왜 자기들의 가정이 파탄 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느님께 "왜 당신은 저의 가정이 파탄 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환경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마음의 일치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게 하고, 우리 자신을 다른 가족들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가치관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욕구를 충족하고자 목적때문에 마음이 석고상처럼 굳어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의 상표가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사로 잡힌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사기 위해 아주 많은 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이들과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점점 더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26년 동안 가족이 함께 매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왜 자기들의 가정이 파탄 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느님께 "왜 당신은 저의 가정이 파탄 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 가정의 모든 것에서 당신의 지향을 이루어 주십시오." **M**

<www.childrenofmedjugorje.com에서 발췌 번역>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금주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금주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현 목격자 비츠카(6)

[1988년 9월 25일, 비츠카는 완치되었다. 6개월 후, 저자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역자 : 신경남 신부

질문 : 비츠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비츠카 : 저는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질문 : 발현이 시작된 이래, 이곳에서 일어났던 육체적 치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츠카 : 발현 초기, 매일 산에 올라가곤 했던 친구 한 명이 농사를 짓던 중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무릎 밑으로 그의 다리는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 부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매일 산을 오르려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산을 오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그 친구를 쳐다보시고, 매우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종종 그렇게 하십니까?

비츠카 : 이따금 저는 그분께서 특별히 발현산과 십자가산을 오르는 순례자들을 향해 미소 지으시는 것을 봅니다.

질문 : 친구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그 친구의 다리 모습을 보여 주셨고, 새로운 다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 : 그의 다리가 치유되었습니까?

비츠카 : 아직 아닙니다. 영원한 표징이 나타날 때, 그 친구의 다리는 치유됩니다.

질문 :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당신 옆에 같이 서있는 친구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질문 : 그 친구가 거기에 서있던가요?

비츠카 : 아니요. 그 친구가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곁에 우리 친구를 데리고 우리에게 발현하셨던 겁니다. 그 친구는 일종의 빛 같은 것 속에 있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위대한 표징이 있는 후에 그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982년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그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비츠카 : 그분은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 저희가 그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질문 :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츠카 : 그 친구는 발현 중에 다친 다리의 발을 통해 전기

가족이 굳게 믿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의 흐름과 같은 전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그 친구에게는 발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비츠카 : 그에겐 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잃어버린 발에서 어떤 전류나 전기 같은 것의 흐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발이 있었어야 할 곳에서도요.

질문 :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츠카 : 그 친구는 동정 마리아 안에서 커다란 확신과 사랑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러한 느낌이 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그 친구는 자신이 새로운 다리를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비츠카 : 그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 청하면 모든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까?

비츠카 :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병을 치유해 주는 분은 성모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질문 :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성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단식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국 믿는 것,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은 아픈 이를 둔 친지들에게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가족이 굳게 믿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정기도의 위력에 대해 늘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질문 : 가정기도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매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매일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 특히 묵주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 : 가족이 함께,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가족의 기도와 단식, 그리고 특히 묵주기도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심지어 전쟁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어떤 종류의 전쟁 말입니까?

비츠카 : 모든 종류의 전쟁입니다. 가족 간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내전, 국가 간의 전쟁 등 말입니다.

질문 : 비츠카, 특히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해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츠카 :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마약과 알코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러한 젊은 희생자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 줌으로써 스스로 잘못된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마약과 알코올의 사악함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비츠카 :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히 집중적으로 세상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현대 사회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너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너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탄은 그 자신을 위해 매 순간과 기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라." 그분은 또한, 지금은 커다란 자비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젊은이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질문 : 비츠카, 당신은 사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비츠카 : 발현목격증인 중 한 명이 젊은 남자를 봤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는 매우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성모님께서 그 발현목격증인에게 원하셨던 바와는 반대되는 일을 그녀가 하길 원했습니다. 그 발현목격증인이 남자의 눈을 바라봤을 때, 눈이 핑핑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무엇인가 단단히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힘을 잃고 평화 속에 있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달아났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발현이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발현하시어 '그 남자는 바로 사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사악한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문 : 사탄의 일 처리 방식은 어떻습니까?

비츠카 : 사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약속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 주고 싶어 하는 멋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 친절함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문 :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비츠카 : 우리 내부에서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무엇인가가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느님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로 인해 동요되거나 화가 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무엇이 하느님계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면, 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힘을 잃고 평화 속에 있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질문 : 사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츠카 : 우리는 우리로부터 사탄을 멀리해 주시도록 매일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신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문 :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습니까?

비츠카 : 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성된 성물을 몸에 지녀야 합니다. 사탄은 특히 십자가나 스카폴라와 같은 성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문 : 메시지 중에서 단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날들에 우리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나 두통이 있기 때문에 단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식할 수 있고, 그럴 만큼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단식이 얼마나 큰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 단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츠카 : 단식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단식에서 오는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해질 때, 우리는 성모님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 단식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빵과 물은 너무 가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츠카 : 처음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단식을 시작할 때,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괜찮아, 조금 더 먹어도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초기 단계에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에는 좀 더 쉬워지고, 세 번째에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단식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질문 : 단지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비츠카 : 그것은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께서 제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단식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M**

이 기사는 6명의 메주고리예 발현목적증인 체험담인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엄마다.

레오니드 신부

"첫 메주고리예 순례는 제 사제직과 성소에 관련이 있습니다. 2005년 제가 사제직 봉사를 하고 있던 교구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구마 사제 직무를 맡았습니다. 구마 사제로서 첫 해 몇 달간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하나는 어느 날 구마를 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섭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존재다. 나의 넘치는 힘으로 너를 파괴시킬 것이다. 너의 사제직을 망가뜨리고, 삶 전체도 파괴할 것이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었고,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그 상황을 저에게 허락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땅, 메주고리예와 성모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으며 매일 유혹을 받았을 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려고 했지만,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사제직과 성소와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 어떤 사람

이 저를 메주고리예에 초대해주어서 사제들의 피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제들이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발현목격증인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신다고 해서 발현산에 갔습니다. 발현산에는 이미 수 많은 신자들과 사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앞에서 어떤 소리가 그쪽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패배자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을 향해 제 눈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음 안에 서서히 희망이 움트고 있었지만, 저의 초라함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그 질문에 답하듯이, 저는 큰 평화와 함께 부드러운 미풍속에서 성모님 현존하심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그 느낌은 마치 다른 세상의 향기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현존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겸손하신분인지 체험하면서 악의 힘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모님께서 직접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분의 순수함과 현존하심이 주는 아름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사탄의 영, 파괴의 영들이 변화되고 모든 우울함과 공포,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어머니. 너는 결코 파괴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약속 하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현존하신다는 그 체험은 저의 성소와 삶을 구하는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구마 예식에서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작은 예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 사제들이 로마에서 온 한 젊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보러 온 마귀 들린 여자 아이에게 구마를 했습니다. 그 사제가 사죄경을 할 때, 사탄이 그 사제를 마구 때려서 땅에 쓰러트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다른 사제를 불렀습니다. 그 사제는 겁을 먹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 아이가 제 앞에 서자, 저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마 예식을 시작하자마자, 그 아이가 아주 심한 자살의 악령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구마 기도를 바치자, 사탄은 영어로 비웃고 모욕하며 비웃었습니다. 기진맥진해진 저는 기도를 끝내고 싶었지만 악령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그 아이도 자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악령은 "도망가야해! 성모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머물 수가 없어!" 울부짖는 소리를 하며 사라졌습니다.

구마 사제 직을 맡았던 지난 5년 동안, 많은 유혹과 시련을 체험했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저를 당신의 성심 안에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신앙과 축복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모님의 은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랑하는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복되신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당신께 청하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엄청난 영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저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M**

〈www.medjugorje.hr에서 발췌 번역〉

(2010년 제 15차 메주고리예 국제 사제 세미나에 참석한 구속주회 우크라이나 관구 소속의 레오니드 신부가 세미나 참가자들과 메주고리예 미르 방송국을 통해 전한 체험담입니다. - 편집자 주 -)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정화의 시기에 나는 너희 앞에 놓인 시련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너희 곁에 있다. 나의 자녀들아, 그 시련 가운데 하나는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를 청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죄는 사랑을 거스르고, 그 사랑에서 너희를 멀어지게 한다. 그 사랑은 바로 내 아드님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님 사랑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싶다면, 너희는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 청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고맙다."

2010년 9월 2일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에게 주신 메시지



처음 보는 고백성사

"저는 메주고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부모는 무신론자였고 제가 아홉 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회의 온갖 사악한 일에 빠지고 말았지요. 13살에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족이 파탄되고 보니 서서히 공포 상태로 빠지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멍청이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고 산다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공허' - 이것이 나의 내적 경향을 잘 묘사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쾌감에 빠져 살다보니 미래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지난 여름에는 자살을 시도하고 병원에서 깨어보니 산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앨리스라는 가톨릭친구가 있었는데 메주고리에 다녀온 후,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들어오는 빛을 느꼈습니다. 7월말에 그는 전화를 하여, "폴린, 내가 메주고리에 가는데 세 사람 좌석을 예약을 했어. 하나는 너를 위하여 했으니 같이 가자!" 앨리스의 말을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지요. 나는 즉각 '그래'라고 말은


했지만, 영화제작회사의 임시 직원으로 여름 직장일이 있었고 또 그만 둘 수도 없었지요. 또한 같이 갈 여비도 없었고요. 과거에 아버지는 저를 돕는 일은 끝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기대도 하지 않고 한번 부탁해보았더니,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즉석에서 '그래, 여비 받을 도와주지.'라고 했고 어머니는 나머지 받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화촬영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화제작이 10일간 쉬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딱 맞는 시기에! 저는 청소년 축제 마지막 날에 메주고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성체 조배에 참석했고 다음날 아침 새벽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십자가 산에 올라갔지요. 때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이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하느님 체험을 원했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산 정상에 도착하자 조용히 서 있을 수가 없어 서성거리다가 할 수 없이 미사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와 혼자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치 내 가슴에 무거운 갑옷이 둘러 싸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갑옷은 나를 질식케 했으며 하느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지요. 하느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만, 모실



그분은 내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고통 받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세를 받지 않았는데 그 순간 영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온 피어릭 소년이 제게 말하기를 "폴린, 고해성사를 보아야 해요!" 옳은 말이었지만, 신부에게 내 죄를 모두 이야기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말았습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것을, 저것을 말하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도저히 못 할 줄 알았지만, 결국 했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고백성사였지요. 그리고 그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영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고해성사 시작부터 그 신부님은 내 안에 있는 해야 할 수 없는 상처를 분명히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지요.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다시 성모님의 태중에 있는 어린 아기처럼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고백에 관한 그분의 관심은 내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나와 함께 고통 받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해성사 중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주셨을 때, 내 안에 있던 공허감이 사라졌

습니다! 저는 기쁨에 울었고 기쁨에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쌓여왔던 사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쁨이 매일 점점 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바칩니다. 나는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메주고리에서 상처로 덮인 내마음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마리아께서 주신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강하게 붙들고 있어'라는 말이 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삼위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무척 행복합니다."

폴린은 영세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폴린을 성모님께 봉헌합시다.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만난 주님!

김연석 다마소 워싱턴 본당

찬미예수님+

저는 30년전 고등학교 시절에, 제 발로 성당에 찾아가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좋으신 주님을 멀리하고 길고 긴 냉담의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잠깐씩 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터널에서 나와 혼인성과 두 자녀들의 유아세례를 위하여 성당에 다니다 다시 냉담을 하던 저는, 자녀들의 첫 영성체 교육을 계기로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했지만, 아직도 저는 주일미사나 겨우 지키는 신자였습니다.

2007년에 아내와 함께 받은 견진성사를 계기로 저의 신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고, 2008년에는 가나안 구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구역장을 잘 역임하면 주님께 큰 복을 받게 된다, 아니면 주님께서 집한채를 마련해 주신다는 등의 구역식구의 격려들을 위로삼아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또 도망치던 구역장 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님께 받은것은, 집 한채 정도가 아닌,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며, 저의 아내를 치유시켜 주셨고, 그렇게도 성당에 안나가시고 다음에를 연발하시던 저의 어머니가 2008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고, 저의 온 가족이 주님안에서 하나되게 하셨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저는 구역장이 하기 싫어서 그 핑계를 대고 교회를 이년정도 안 나갈 정도로 신심이 형편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가톨릭 신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경제적 여유와 제가 이론 성취에 대한 만족감 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주님을 잊고 살던 저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저에게 극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008년 3월 초부터, 저는 매우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왼쪽 눈 주위에 작은 안면 마비 증상과 왼쪽 팔 다리의 저림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가슴에도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자기 위안으로 무심코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구역모임이 있는 3월 둘째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두시간 정도 외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껴서 돌아온 즉시 낮잠을 자고, 구역모임을 주도하려 갔습니다. 구역모임이 끝나고 구역 식구들과 대화중에 갑자기 암선고를 받으신 성당 교우 이야기를 하던 한분이 저도 얼굴색이 안 좋아보이니 건강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주일을 지나 월요일까지도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출근 후에 제 증상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저는

수술날짜는 정해졌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저는 유언장 작성을 시작으로하여
저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제 증상이 심장마비의 초기증상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병원응급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의사와 면담후 제가 안면에 마비 증상이 있고, 가족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것에 주목한 의사가 혈액 검사와 X-Ray 촬영 외에도 머리 부분의 CT를 찍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지루한 5시간의 기다림 후에 들어온 의사는 심장은 이상이 없지만 CT에서 Brain Aneurysm, 즉 뇌동맥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2시에 구급차를 타고 Johns Hopkins병원 뇌신경 외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동안 더 검사를 받고, 저는 의사의 권유대로 뇌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전 수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와서 "You are Lucky."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우 뇌동맥류의 발견은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킨 후이나 발견되고, 30분 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거의 모든 경우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선 "이 건 내 운이 아니야! 주님께 서 나에게 알려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수술날짜는 4월 14일로 정해졌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저는 유언장 작성을 시작으로하여 저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입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수술의 성격상 제가 수술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너무나 담담하기만 했고, 수술전 신부님과 의 총고해를 꼭 하라는 한 자매님의 권고도 무시한 채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원래 5시간으로 예정됐던 수술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쳐서 거의 9시간이나 걸리게 되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저의 아내 에밀리아, 누님, 매형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는 모두 혹시하는 불안감에 싸여서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라서 예상보다 일찍 퇴원하여 집에서 회복을 하며, 다시 직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부어오른 왼쪽 얼굴이 몇주가 지나도 잘 가라앉지 않았지만, 집도 의가 그럴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첫째 일요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내,

에밀리아의 왼쪽 갑상선 부위가 갑자기 부위 올랐고, 그 크기가 10cm가 넘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에밀리아를 바라보면서 저는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즉시 전문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며 좀 더 검사를 하자는 의사의 말 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 얼굴이 크게 부은 저는 에밀리아와 함께 조직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지만, 그녀를 기다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묵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도움이 절실이 필요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주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얼굴 반쪽이 크게 붓고 고열과 무기력증으로 서 있기도 힘든 저와, 큰 흑을 목에 단 에밀리아는 구역 점심 봉사 날일인 5월 어머니 날, 구역식구들과 함께 토요일에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부터 열이 나는 것을 느끼던 저는, 주일날에는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끝까지 남아서 점심 봉사 마무리와 구역회의를 끝냈습니다. 점심 봉사가 끝나고, 저의 대부님께서 저에게 줄 것이 있으니 집에 들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님은 성모님의 성지에서 떠 온 성수를 한 통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고열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대부님께서 주신 성수 한잔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 새벽 5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깬 저는 무심코 얼굴을 만지다가 끈적끈적한 것이 느껴져서 불



을 켜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 정확히 말해서 피고름이었습니다. 침대로 와서 베개를 보았더니 베개의 삼분의 이 이상이 피고름으로 폭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장시간의 수술로 인해 감염이 되어 꿩다가 제일 약한 수술 봉합부위에서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일은 아픈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께 봉사한 저의 부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은총이었고, 성모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긴 성수에 의한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터지지 않고 계속 고여 있었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집도의에게 연락을 하고, 항생제 처방 받아 7일 정도 복용을 하였지만, 피고름이 계속 나와서 잠자기 전 수건을 베개 위에 놓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는 수건이 피고름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집도의에게 전화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니, 이번에는 집도의가 다음날 당장 진찰을 받으러 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를 본 집도의는 당장 수술을 하자고 하였으나, 그날은 혼자서 운전을 하고 아무준비도 안됐던 저는 다음날로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5월 21일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감염으로 인해서 3시간 이상 걸린 2차 수술을 받은 후, Vancomycin 이라는 항생제 정맥주사를 하루 두번씩 맞으며 지내던 저는 한달이 지난 5월 23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나마 좋은 일 하나는 에밀리아가 가진 갑상선의 혹이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을 없애기 위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6일, 저희 부부는 에밀리아의 갑상선의 혹 치유를 위해서 김재중 회장님이 참석하시는 동중부 성령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25일 밤 9시경부터 저의 수술부위에서 다시 피고름이 나와서, Johns Hopkins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에밀리아가 저에게 자신의 갑상선 혹 주위에서 이상한 느낌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구역식구 중 저희와 가깝게 지내던 한 자매님이 김재중 회장님께 에밀리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손으로 혹을 만지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다시 그 자매님에게 김재중 회장님께서 에밀리아가 치유됐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기도를 하라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손으로

만져지던 그 큰 혹은 하룻밤 사이에 에밀리아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에밀리아에게 혹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알레루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크나크신 은총이, 성령의 은총이 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지만 저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재감염된 것을 알게 된 의사들은 항생제 용량을 계속 증가시켰습니다. 5월 28일 다시 퇴원을 하여 집에 왔지만 이번에도 계속되는 고열과 오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매번 항생제 투여를 받을 때마다 한시간 이상 오한에 시달려야 했고 체온은 화씨 100도에서 103도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5월 30일 밤 불티모어 성당에서 김재중 회장님께 안수를 받고, 다시 병원에 들어갈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쯤 다시 터진 피고름은 그 양이 집에 있는 모든 거즈를 다 써야 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3차 수술.... 끝이 보이지않는,
긴 터널속에서 있는 저에게 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 할 수 없다고
계속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5월 31일 새벽 저와 아내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2주간 휴가를 가서 다른 의사와 이야기를 하니 제가 3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전 수술에서 절개했다가 봉합한 두개골의 부분을 들어내서 버리고, 감염부위를 세척한 후 그 부분을 열어놓고 두피만 봉합하고 3개월 동안 항생제를 투여한 뒤 다시 수술을 하여 인공 두개골을 열린 부위에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없고 휴가중인 집도의가 돌아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의사들은 계속 저의 항생제 용량을 올렸습니다. 저는 항생제를 맞으면 1~2시간 정도 오한에 떨었고 체온은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으며, 심지어는 백혈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000이던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는 하루에 1000씩 내려가서 마침내는 1000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하루에 4~5시간 동안 오한에 떨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었고, 그 와중에 어느 자매님과 저의 대모님께서 읽으라고 권해 주신 욥기는 어떤 고난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저희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속에서 있는 저에게 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 할 수 없다고 계속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약사인 저와 내내는 항생제 투여 때마다 열이 오르고 오한이 나며, 혈액수치가 내려가서 약에 문제가 있는것 같았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항생제가 원인이 아니냐고 물어 보았지만 그 의사는 저희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상선 혹 치유로 더욱 굳은 믿음을 갖게 된 내내는 본당 신부님과 김재중 회장이 수술 없이 낳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강력히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드디어 백혈구 수치가 800정도가 되자 병원에서는 Vancomycin 투약을 중지했지만 아직도 같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뇌막염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목요일인 6월 5일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의사들의 말에 저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내내는 제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유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 납니다! 수요일, 아내의 전화에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잡아 놓았던 예약을 확인하는 담당의사의 메시지가 남겨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의아해하면서 사무실에 전화를하니 담당의사가 목요일날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선 아무도 저의 아내에게 전화를 한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와 저의 내내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시간에 예정됐던 저의 수술은 응급환자가 계속 들어 와서 두번이나 연기 되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담당의사는 모든 상황을 종합한 뒤 수술을 연기시켰습니다.

Vancomycin 투약이 중지된 48시간 후 저의 백혈구를 비롯한 혈액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고열도 떨어져 모든 문제가 항생제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3차 수술없이 항생제만 바꾸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의 제 느낌은 마치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 밝은 빛을 본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강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어 저희를 환히 비추어 주셨고, 성모님은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잡아 주시고 에밀리아에게 굳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크나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Vancomycin을 대신 다른 항생제를 투약 받아야 했는데 그 항생제는 14일 이상의 장기 복용시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뇌막을 통과 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절실했던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며 한달을 병원에서 보냈던 저는 마지막 그 기나긴 11일간의 입원후에 혈액치수가 많이 올라가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 퇴원하였습니다. 그 11일간의 입원기간 중 무려 35-40파운드의 체중이 줄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잃어버린 체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선물을 주님께 이미 받았습니. 입원중엔 저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참담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그 용졸함을 버리고 오히려 제 자신이 용서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고비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끝없는 오만에 떨면서, 그 모든 고통중에서 저는 제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히 성당에 나가시기를 거부하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성당에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번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에 서툴고 한글도 잘 읽지 못하는 마르셀라와 니콜라스가 저를 위하여 한국어로 묵주기도를 바치며 기도한 것을 알고, 그 시련을 통하여 저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모님의 크신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저는 7월 초까지 새 항생제를 큰 부작용 없이 맞으며 건강한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중순에 열린 동북부 성령 대회에 참가하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체험하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3차 수술을 받지 않고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3개월동안 장기 복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는 관계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모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느님,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 저를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만드신 하느님, 우리 가족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신 성령님, 지금도 저희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신 성모님, 사랑합니다!!!

준주성범에서 발췌한 기도로 끝내고자 합니다.

"주여, 이 일이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그대로 이렇거나 저렇거나 당신 뜻대로 되어서이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시고, 뜻에 맞는 그 정도로 주시고, 뜻에 맞는 그때에 주소서. 당신이 아시는 대로 당신께 더 의합하고 당신 영광에 더 도움이 되는 그대로 내게 행하여 주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두어 주시고 모든일에 나를 마음대로 하여 주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사오니 나를 돌리시고 이리저리 굴리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무엇이든지 순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나이다. 원하오니 타당히 또는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이다." 아멘.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중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이 토마스

편집위원: 최미정, 이금희, 최윤비, 이연숙, 김성주, 남미자, 신소희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피아니스트 희아입니다.
손가락이 양손에 두 개씩 밖에 없고 다리가 없어서
무릎으로 걸어 다니는 선청성사지기형 1급 장애인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고
세상을 향해 밝은 웃음을 웃게 해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나의 장애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드립니다.

이제 나의 피아노 연주에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선율을 담아
세상에서 삶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문의처
610-366-9613 / 917-626-4314
www.qpmm.org

주관 미주 가톨릭,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 가톨릭 다이제스트, 평화신문, 가톨릭 신문, 동방인쇄

일
정

- ▶ 뉴저지 마돈나 성당 11월 7일 (토) 오후 8시 ▶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11월 9일 (화) 오후 8시
- ▶ 워싱턴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11월 11일 (목) 오후 7시 ▶ 버지니아 성 정바로 11월 12일 (금) 오후 7시
- ▶ 시카고 테크니 타워 피정센타 11월 14일 (일) 오후 7시 ▶ 멤피스 한인 천주교회 11월 18일 (목) 오후 8시
- ▶ 조지아 한국 순교자 성당 11월 20 (토) 오후 8:30, 21 (일) 오후 7시 ▶ LA 성그레고리 한인천주교회 11월 27일 (토) 오후 7시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마리아, 강신일, 강옥주, 강재식, 강찬구, 고경희, 고은솔, 곽마리아, 곽영숙, 권숙하, 권희성, 김건일, 김금성, 김동익, 김마테라, 김마리아, 김명숙, 김비아, 김세록, 김세정, 김수현, 김아네스, 김야고보, 김억환, 김엘리자벳, 김영서, 김원경, 김정자, 김재순, 김주희, 김춘자, 김학실, 김호숙, 김호용, 김효신, 김효안, 노마리아, 류숙자, 문방자, 문순임, 문홍식, 민정숙, 민카타리나, 민헤레나, 박연희, 박인숙, 박정자, 박찬숙, 박청희, 박캐롤라인, 박혜영, 백명숙, 백안셀모, 서애자, 서정명, 서정열, 손덕준, 송정순, 신마리아, 신순덕, 신현아, 신현철, 심세실리아, 심현미, 안산티, 안연숙, 엄봉화, 엄충모, 예길자, 원명희, 오경옥, 오미정, 유베로니카, 유태홍, 윤경이, 윤윤선, 윤소화테레사, 이동우, 이동희, 이마리아, 이민경, 이민희, 이벨라렛다, 이보리나, 이상환, 이성희, 이수은, 이순세, 이스콜라, 이영분, 이윤영, 이윤우, 이의정, 이은희, 이정순, 이정옥, 이재권, 이재현, 이종훈, 이진수, 이카타리나, 이한순, 이희자, 임가경, 임레오니아, 임마리아, 임순복, 장레지나, 장종순, 전현숙, 정광선, 정금희, 정미연, 정찬례, 정홍영, 조성희, 조안나, 주규순, 주정숙, 지니김, 지위니, 진도미니카, 진스텔라, 차수미, 차세실리아, 최경숙, 최도경, 최루시아, 최문석, 최스텔라, 최승환, 최종금, 팽정숙, 편까리마스, 한미경, 한승신, 호춘애, 홍경복, 홍마르타, 홍옥선, 홍엘리사, 홍정자, 황계자, 황혜정, 베이사이드 기도회, 메릴랜드 기도회, 익명

Yousun Hunt, Susan Garner, Raymond Leach, Soung Kim, Lisa Rigoni, Yoon Lee, Cynthia Ziegmann, Joo Kim, Young Choe, Insuk Mullins, Kyong Meeryvacd, Yoon Auh, Mee Kang, Mary Lee, Eileen Cho, Tak Lee, Hong Park, Ann Cho, K. Larcenaire, Peter Ham

- **지난호 부족금을 보내주신 익명의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발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월금	- \$ 3,336.96
일반 후원금	\$8,520.00
지난호 부족금 후원(익명)	\$5,000.00
후원금 합계 :	\$13,520.00
지출	
56호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비품 및 운영비	\$12,884.95
이월금 (지난호 부족금)	\$3,336.96
총지출액	\$16,221.91
현재 부족금	- \$ 2,701.91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구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데라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보다 좋은 체험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꼬집어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해결 방법과 우리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때는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바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2010년 송구영신 새해맞이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순례



순례지 : 발현산, 십자가산, 청십자가, 부활청동상,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원,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체나콜로, 어머니 마을, 발현 목격증인들의 체험담, 메주고리에 특유의 음악과 찬미로 진행되는 본당의 은혜로운 저녁 예절인 묵주기도와 미사와 치유의 예절, 성시간, 십자가 경배, 성 야고버 성당의 연말 미사, 미리아나의 성모님발현에 참석

드브로브닉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방문, 1700년전에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과 가톨릭 신앙의 유적지 방문

일 시 : 12월 26일 부터 2011년 1월 4일 (9박 10일)
JFK 공항 출발기준 (\$ 2,100)

순례단장 : 남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마감 : 2010년 10월 30일

문의처 : 610-366-9612 / 917-626-4314

E-mail : qpmm.org@gmail.com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